

철강업계, 노사분쟁·저가경쟁 일단락... 2분기 업황반등 기대

증권가, 1분기 실적 부진 전망
반덤핑 조치 등 시장환경 변화
'생산 정상화·수요 회복' 맞물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내수 부진과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1분기 실적도 급전직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절적 수요 회복과 정부의 반덤핑 조치 등 대내외 변수 개선에 힘입어 2분기에는 분위기가 반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내 200개 이상의 건설 기업들은 지난 3월에 총 514만톤 건설용 강재를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3.6% 증가한 수치이며 4월 예상 구매량은 591만톤으로 추산된다. 특히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건설용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지 철강시장의 공급과잉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연간 총 생산량이 10억톤에 달하는 중국 철강기업들은 내수 침체로 인해 해외로 수출 물량을 빼돌려왔으며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앞선 중국 철강재가 국

내 시장에 유입되며 한국 철강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철강업계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다. 증권가에서도 주요 철강사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1분기 철강3사의 합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든 약 58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제철의 올 1분기 매출은 5조 5615억원, 영업이익은 2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

비 96% 줄어든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의 당진 파업 비용과 재고평가손실 등으로 약 9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면서 현대제철 영업이익의 적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동국제강 또한 부진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제강의 1분기 영업이익은 126억원으로 진단되며 이는 전년 동기 86% 하락한 수치다.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른 봉형강 판매량 감소와 국내 철근 판매량 축소가 꼽힌다.

포스코는 주요 철강사 중에는 선방할 것으로 예측된다.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5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 다른 철강사들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직전 분기 영업이익이 954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업계는 부진을 딛고 2분기 업황반등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현대제철은 최근 노사 분쟁 이슈를 해소함으로써 생산 정상화와 성수기 수요 회복이 맞물려 실적 회복에 적기라는 관측이 따른다. 또한 한국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가격 인상의 여건이 마련된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제강사들도 봉형강 제품 생산을 전면 섰다온 하는 등 수급 균형을 맞추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중국 내 철강재 수요 증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다만 이제는 가격과 수요 모두 바닥을 찍고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나온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저소득층 냉방기기 공급

정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선정

삼성전자가 정부가 시행하는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냉방 기기 공급 사업자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에 고효율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다.

삼성전자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된 1만8000여가구에 2025년형 벽걸이 에어컨 신제품을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되는 신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혜민 기자

현대제철 'H 코어 솔루션' 과제 공유

현대제철이 국내 건설 분야 산학연구기관과 건설 공법 및 신기술을 개발한다.

현대제철은 지난 11일 당진 현대제철 연수원에서 '에이치 코어 솔루션 파트너 킷오프 2025'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하반기 제2회 에이치 코어 솔루션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현대제철은 에이치 코어 솔루션의 추진 배경 및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내용, 사업화 전략,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기관은 과제 수행 계획에 따라 현대제철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단순한 건설 강재 개발을 넘어 환경, 안전, 사회, 건축 방식 등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고객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LG전자, GM '올해의 공급사' 수상... 전장 기술력 입증

차량 내 고객경험 혁신 성과
'최우수 크리에이티비티 팀' 선정



GM '제33회 올해의 공급사 시상식'에서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왼쪽에서 네번째)과 VS북미법인장 오해진 상무(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GM의 크리스틴 토스 전장부품·소프트웨어·커넥티비티 구매 총괄(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LG전자

LG전자가 미국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차량 내 고객 경험을 혁신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의 공급사'로 선정됐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린 GM '제33회 올해의 공급사 시상식'에서 '최우수 크리에이티비티 팀'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와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 전장 솔루션을 통해 GM 차량 내 사용자 경험을 새롭게 정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GM은 매년 품질, 구매, 엔지니어링, 제조, 물류 등 전 부문에서 협력사 성과를 종합 평가해 '올해의 공급사'를 선정한다. LG전자는 2014년 이후 올해까지 총 7차례 수상했다.

특히 LG전자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

동차(SDV) 전환 흐름에 맞춰 IVI, 텔레매틱스, 첨단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차량 핵심 부품 전반에 걸쳐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텔레매틱스 시장에서 24.4%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공급 안정성 면에서도 성과를 인정 받았다. LG전자는 GM 북미 지역에서 비스 부품을 99% 적시 공급하며 지난 달 '골드 어워드'를 수상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같은 해 GM코리아 및 브라질항 부품의 적시 공급률은 100%를 달성해 '플래티넘 어워드'도 받은 바 있다.

LG전자는 자체 개발한 SDV 전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LG 알파웨어'를 중심으로 차량 내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G 알파웨어는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이웨어' ▲증강 현실(AR)·혼합현실(MR)·인공지능(AI) 기반 몰입형 정보 제공 솔루션 '메타웨어' ▲AI·카메라 기반 안전 운전 지원 솔루션 '비전웨어'로 구성된다.

또한 LG전자는 자사 스마트 TV 운영체제 웹OS(webOS)를 전기차에 최초로 적용하며 차량을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전환하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도 구체화하고 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혁신적인 자동차 솔루션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김민표 대표 "지능형 로봇 솔루션 연내 출시"

(두산로보틱스)

타운홀미팅 개최... 조직혁신 주무
휴머노이드 분야 우수인력 조기 확보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대표(사진)가 AI 중심의 기술 혁신에 속도를 높인다.

두산로보틱스는 분당두산타워에서 김민표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재됐던 사업을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한편 휴머노이

드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자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은 협동로봇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간단히 설치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플러그앤플레이 제품이다. AI를 통해 작업 경로와 순서

를 최적화하고 작업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수의 협동로봇간 협업으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두산로보틱스는 먼저 제조 분야의 자동화 관련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연내 출시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두산로보틱스는 '실용적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을 위해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이달 21일부터 홈페이지와 다양한 채용 플랫폼을 통해 로봇 R&D,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AI, 소프트웨어, 사용자경험(UX), 품질, 영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기

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AI &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 R&D 조직을 신설하고, 최적의 로봇 연구개발 환경을 보유한 통합 R&D 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협동로봇 시장을 넘어 성장 잠재력이 더욱 큰 지능형 로봇 시장의 톱 티어가 되려면 기술 혁신으로 제품 초격차를 끌어내야 한다"며 "기술 개발·내재화, 전략적 파트너십, 인수·합병(M&A) 기회 확보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뿐만 아니라 실행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혁신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BYD코리아가 14일 안양전시장에서 이 전시장 1호 고객과 함께 BYD 아토 3 차량 인도식을 진행하고 있다. /BYD코리아

BYD, '아토3' 고객 인도

중국 전기차브랜드 BYD가 한국시장에서 고객 인도에 나섰다.

BYD코리아는 국내 첫 승용 모델인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의 고객 인도를 14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토3는 지난 1월 16일 출시됐으나 환경부의 보조금 평가 등 절차가 이달 초 마무리되면서 고객 인도가 다소 지연됐다. /양성운 기자 ysw@